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THINGS WE WISH WERE TRUE

가제 : 사실이기를 바랐던 일들

저자 : Marybeth Mayhew Whale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아마존 킨들 유료 전자책 현대소설 부문 1위, 조용한 마을, 걸모습과 울타리 뒤에 가려진 비밀들
오며 가며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출근 시간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급한 일이 생기거나 예고 없던 야근에 발목이 잡히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 어쩌다 들러보면 말끔하게 치워진 집과 세련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부러움을 자아내지만, 그런 집에 살면서 잘 세차된 자동차에 오르는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대변할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누구나 한번쯤 떠올릴 법한 상상력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설이 발표되어 올 여름 큰 화제를 낳았다. 아마존 킨들 '8월 추천 도서목록(Kindle First selection)'에 포함되고 현재 유료 전자책 가운데 현대 소설, 심리 소설, 여성 심리 소설 각 분야에서 1위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소설이다. 새하얀 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진 노스 캐롤라이나의 조용한 마을에서 끔찍 숨겨온 이웃들의 비밀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게 이어진다.

시카모어 글렌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마을이라면 으레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곳이다. 그러나 각자의 대문 안에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고,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던 그 사연들은 초여름을 맞아 매년 주민 모두의 아늑한 피서 공간으로 사랑 받는 마을 수영장이 개장하던 주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아온 쥘 보예트와 존 보예트 부부는 이제 조용한 아침을 돌이켜 맞이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세 아이가 별탈 없이 자라서 독립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였던 부부는 30여 년의 결혼생활을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 두 사람의 숙제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즐기

면 되지만 젤은 점점 커져만 가는 공허감에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게 전부였나? 그토록 꿈꾸던 자유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젤은 아이들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주었던 자신의 삶이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문 뒤에 감춰진 말 못할 사연들, 수영장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로 서서히 드러나는 실체

시카모어 글렌에서 나고 자란 브라이트는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와 사귀던 남자아이 에버릿을 몰래 흠모하다가, 그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브라이트에게는 소녀 시절에 꿈꾸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다 이루고 사는 운 좋은 인생이 펼쳐졌다. 아들 크리스토퍼도 물론 그 행복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에버릿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둘째를 낳자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브라이트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이 극심한 고통으로만 여겨졌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그 부탁만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고조되고, 지금껏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만 흘러온 행복을 지키기 위해 브라이트는 하나 둘 진실을 숨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비밀이 브라이트를 압박하며 짓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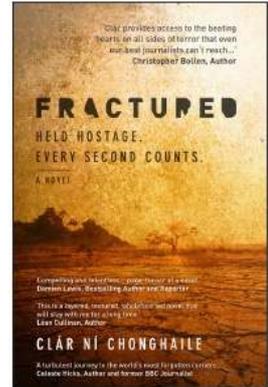
젠시 역시 이 작은 동네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젠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마디 예고나 설명 없이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다. 젠시를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이들이 그 알 수 없는 선택에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했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젠시가 없는 삶을 겨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젠시는 사라질 때처럼 예고 없이 다시 시카모어 글렌에 나타났다. 그간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가슴에 안은 채 다시 등장한 젠시는 마을에 의도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녀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 모른 척 덮으려 했지만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된 감정들이 아지랑이처럼 곳곳에서 피어난다.

젤, 브라이트 젠시, 세 사람 외에도 환하게 웃는 미소 뒤에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수영장이 개장되고 얼마 후, 아이 하나가 거의 익사할 뻔한 끔찍한 사고가 터지면서 뜻밖의 변화를 맞이한다. 이 사고가 일으킨 균열, 포장지가 벗겨지듯 각자의 이야기가 속살을 드러내고, 케일리라는 한 소녀의 용기와 결단, 호기심은 사람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회오리 속으로 몰고 간다.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각 인물의 감정을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며,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그려 보인다. 흠 많고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도 많은 이들의 이야기는 답답하지만 그래서 더욱 현실적이다.

<저자 소개>

메리베스 메이휴 웨일렌(Marybeth Mayhew Whalen)은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문학 사이트 '쉬리드(She Reads)'의 공동 창립자로,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 작가 모임에도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목 : FRACTURED
가제 : 조각난 이야기
저자 : Clár Ní Chonghaile
출판사: Legend Press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소말리아에서 인질로 붙잡힌 저널리스트와 그를 감시하는 소년, 그리고 아들을 구하러 온 어머니

뉴스에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인질로 붙들렸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세상이다. 여행을 갔다가, 혹은 취재를 위해 방문하거나 종교 활동을 벌이러 가난과 폭력에 찌든 땅을 찾은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희망 없이 매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한 몫 벌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여겨진다. 데뷔 소설에서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택한 작가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인질로 붙들린 기자 피터 맥과이어를 주인공으로 삼아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내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긴박감 넘치게 그려냈다. 아들처럼 평생을 기자로 살다가 은퇴한 피터의 어머니와 피터에게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는 소말리아의 십대 소년까지, 세 사람의 시선에서 각자의 희망과 고통을 더욱 실감 나게 전한다. 「가디언」이 매년 맨부커 상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상관 없이 독자들의 의견을 중시하여 인기 도서를 선정하는 ‘낫 부커 프라이즈(Not the Booker prize)’의 2016년 수상 후보에 오른 소설이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 협소한 공간에 갇혀 있는 피터는 그 상태로 며칠이나 지났는 지도 다 잊어버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시간을 알 수가 없다. 내부는 온통 시커먼 어둠뿐이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음으로 낮인지 밤인지 겨우 짐작할 정도였다. 아직 기억이 남아 있었던 어느 날,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쓴살같이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내 붙들려 죽기 직전까지 얻어 맞고 이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기삿거리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온 저널리스트답게 피터의 여권에는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를 방문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이렇게 소말리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피터는 자신을 인질로 잡은 무리가 언제든 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이 그런 일들을 취재해왔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겪을지 누구보다 생생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 오물통과 다름 없는 더러운 환경에 던져진 채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감이 도무지 낮지 않는 몸의 상처만큼이나 그를 괴롭혔다. 피터는 눈뜬 시간 내내 엄습하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희미해져 가는 정신을 붙들어 머릿속 여행을 시작한다. 지나온 삶의 여정,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들, 만나고 헤어진 인연들을 되도록 세세하게 떠올리며 버텨보려고 애를 썼다.

꿈쩍한 기억과 후회, 고통 속에 흘러온 과거를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세 사람의 목숨 건 여정

점점 무너지는 피터에게 매일 밥을 가져다 주는 소년 압디는 그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는 버팀목이었다. 테러리스트 단체 ‘알 샤바브’에 소속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해야 하는 압디는 소말리아에 사는 또래 아이들처럼 비극적인 일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겪으며 목숨을 부지해 왔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압디가 얼른 돈을 벌어서 이 지옥에서 함께 탈출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디는 아버지와 형을 무참히 죽인 자들, 다름아닌 그 자들의 손아귀에 붙들려 꼭두각시처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압디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알 샤바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 잡혀 온 외국인, 피터에게 쓰레기나 다름 없는 죽과 더러운 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압디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시커먼 토굴 속에 늘 작은 햇불을 들고 나타나 피터가 그릇을 비울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기만 하던 압디는 피터와 서서히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갇혀 있는 피터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고, 마침내 우정이 싹튼다. 친구가 된 피터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한 압디는 그를 탈출시키기로 마음 먹지만 일은 갈수록 꼬여만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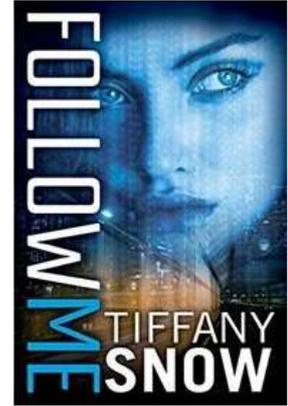
한편, 위험한 곳으로 떠난 아들을 기다리던 피터의 어머니 니나는 그가 인질로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소말리아로 향한다. 모자의 관계는 썩 가깝지 않았지만, 저널리스트로 세계 곳곳을 누볐던 니나로선 여느 엄마들처럼 가만히 집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아들이 겪고 있는 꿈쩍한 상황은 늘 담대하게 살아온 니나가 감춰왔던 트라우마에 다시 불을 붙인다. 아주 오래 전, 라이베리아에서 만난 피터의 친부와 무서운 총격전까지, 다시는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과거가 니나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각자의 머릿속을 휘젓는 가운데, 피터와 압디, 니나 세 사람은 다시 만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다.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 자유를 찾아 길을 나선 사람들,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박감과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들여다 본 작가의 통찰력이 큰 감동을 주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라르 니 촌가일레(Clár Ní Chonghaile)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런던 로이터에서 저널리스트 교육을 받고 20년 넘게 기자로 살았다. 나이로비에서 살던 시절에는 「가디언」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내전에 관한 기사를 주로 썼다. 2014년부터 영국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제목 : FOLLOW ME
가제 : 나를 따라와
저자 : Tiffany Snow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6년 10월 4일
분량 : 302 페이지
장르 : 소설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차이나 맥과 위험천만한 IT 프로젝트, 스릴 넘치는 로맨스 시리즈

날카로운 윗트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음모, 외모와 능력 모두 출중한 남자와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만남,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로맨틱 스릴러 시리즈 '타락한 마음 (Corrupted Hearts)'가 첫 번째 이야기 『나를 따라와(Follow Me)』로 시작됐다. 열아홉 살 때부터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어린 나이에 최고의 직장에 입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던 젊은 여자 주인공 차이나 맥을 중심으로, 그녀가 다니는 회사와 이웃, 갑자기 나타난 조카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소설이다.

이제 겨우 스물세 살, MIT를 갓 졸업한 차이나는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졸업하기도 전부터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회사 '시스넷'에 스카우트되어 역대 연봉을 받으며 일해온 그녀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하루하루를 체계적인 일정과 계획을 칼 같이 지키며 살아간다. '집안일 하는 날'로 정한 일요일은 일주일 치 장을 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빨래하고, 세탁소에 들르고, 세금 내고, 멀리 떨어져 사는 할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다 지키는 식이다. 사소한 습관도 마찬가지로 샐러 후에는 반드시 커피를 마시고, 월요일에는 피자만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밤 열 시 반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뭐든 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나에게 안도감과 편안함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손녀딸을 염려하는 할머니가 당부하신 말처럼, 모든 걸 미리 생각한 대로만 처리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른다. 차이나가 잘 길러보려던 금붕어가 아무리 세심하게 챙겨도 자꾸 죽고 마는 것처럼, 철저히 대비해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시스넷의 젊은 CEO 잭슨 쿠퍼가 차이나에게 위험천만한 일급보안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시계처럼 돌아가던 차이나의 삶에 균열이 일었다. 정부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업체가 의뢰했다는 그 일은 잘만 처리되면 시스넷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겠지만 자칫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장담할 수 없었다. 잭슨이 그런 부담스러운 일에 담당자로 차이나를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차이나는 그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었다. 회사 대표이기도 했지만, 남몰래 흠모해온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채로 발견된 프로젝트 관계자, 논리 대신 본능이 생사를 좌우하는 위태로운 상황들

사실 잭슨 쿠퍼는 기업가이지만 브래드 피트 뺨칠 정도로 젊은 여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 인사였다. 큰 키에 깊고 온화한 갈색 눈, 밤색 머리카락, 넘치는 지성미와 자상한 말투, 게다가 시스넷을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막대한 부를 쌓은 그는 온라인 보안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IT 만능 해결사'로 회사를 막강한 위치에 끌어올린 유능한 인물이었다. 최고의 실력을 지닌 영재만 직원으로 뽑아 동종업계 다른 업체들은 선뜻 손도 대지 못하는 일들을 다 해치워온 그에게 직원들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고, 차이나도 가장 아끼는 자산 중 한 사람이었다. 위험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정부 프로젝트를 맡게 되자마자 바로 떠오른 책임자도 차이나였다.

회사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차이나는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질 지경인데, 혼을 쏙 빼놓는 인물이 둘이나 더 나타난다. 열여섯 살짜리 조카 미아가 갑자기 집을 나와 무작정 차이나를 찾아와서는 한동안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나, 옆집에 갑자기 매력적인 남자가 새 이웃으로 이사를 왔다. 거의 결벽증 수준으로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는 차이나의 눈에 클락이라는 그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어딘가 불안해 보이지만 섹시한 매력이 흘러 넘쳐 마주치면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온 계획적인 삶이 다 엉망이 된 와중에 차이나는 새로 맡은 프로젝트에서도 출중한 실력을 발휘하지만,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급기야 일을 함께 진행하던 핵심 관계자 두 명이 갑자기 죽은 채 발견되면서, 이 일은 실패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어느 날부터 가는 곳마다 차이나의 뒤를 밟는 누군가의 인기척까지 느껴지기 시작한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이나는 난생 처음으로 논리 대신 자신의 직감에 의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저자 소개>

티파니 스노우(Tiffany Snow)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역사와 사회학을 공부하고 정보기술 교육자 겸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전업 소설가 생활을 시작했다. <캐슬린 터너(The Kathleen Turner)> 시리즈, <엉킨 덩굴(Tangled Ivy)> 시리즈 등을 썼다.

제목 : THE SPINNING MAN
가제 : 버치 교수의 설명
저자 : George Harrar
출판사: Blue Hen Trade
발행일: 2004년 2월 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성공한 교수에게 씌워진 미성년자 납치범의 오명, 그는 피해자인가 악당인가? 영화 제작 예정작

철학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꾸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교수가 미성년자를 납치한 범인으로 지목된다. 2003년 처음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끈 심리 스릴러 소설 『버치 교수의 설명(THE SPINNING MAN)』에서는 사라진 여고생의 행적을 쫓던 경찰이 지역 대학의 철학과 종신교수로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던 예반 버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벌어진 일들과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버치 교수가 정말 범인인지, 억울한 누명을 쓴 불쌍한 피해자인지 마지막 장까지 가늠할 수 없도록 하여 팽팽한 긴장이 끝까지 이어지는 소설의 탄탄한 구성은 최근 영화 옵션 계약이 성사되면서 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두 달 내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될 영화에는 <왕좌의 게임>에 출연했던 니콜라이 코스테르 발다우(Nikolaj Coster-Waldau)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그레그 키니어(Greg Kinnear)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고, 돈 버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야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철학을 공부하려는 신입생 수가 크게 줄자 예반 버치 교수가 재직 중인 피어스 컬리지의 철학과도 학교에서 점차 입지가 줄고 있었다. 하지만 철학을 택한 것을 단 한 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자기 분야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른 버치 교수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열살짜리 두 쌍둥이 아들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며 살았다. 얼마 전에는 몇 년간 온 힘을 쏟았던 저서까지 출간이 되었으니, 남들이 돈을 좇아 다 떠나간 철학의 세계에서 변치 않고 한 우물을 파온 자신의 명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기대에 버치 교수는 오히려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늘 그럴듯 예고 없이 들이 닥쳤다. 어느 날 밤, 쌍둥이 아이들과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길에 경찰이 쫓아오더니 놀란 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진 채 경찰서로 끌려간 것이다. 조사실에 나타난 로버트 말로이 형사는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조이스 보너가 8월 23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원 안내소에서 나온 뒤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공원에서 봤다는 자동차의 색깔, 형태와 번호판 첫 글자 두 개가 버치 교수의 차와 일치한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털어놓으라고 종용했다. 갑작스러운 체포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며 버치 교수가 어린 소녀를 납치할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는 정말 결백할까, 아니면 기막힌 거짓말쟁이일까?

사라진 여고생 치어리더, 불리한 쪽으로 쌓여만 가는 증거와 진술들, 예측할 수 없는 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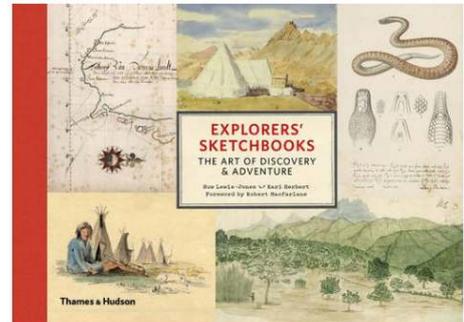
버치 교수는 조이스가 실종된 날 공원에 간 적도 없다고 억울해하며, 대학에서 있었던 수업 일정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한다. 그의 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그날은 일단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교수의 설명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포착한 말로이 형사는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차를 뒤지고, 차에서 조이스의 립스틱과 라이터, 머리카락이 발견된다. 조이스의 집을 뒤져서 나온 일기장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난다. 고교 치어리더로 활약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던 실종자는 버치 교수와 원래 알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일기장 곳곳에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조이스의 친구들은 그녀가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리라 생각했었다고 진술한다. 버치 교수는 졸지에 이름조차 들은 적 없는 여학생을 집적거리고, 불륜 행각을 벌이다 납치까지 저지른 파렴치한이 되고 만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후 주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지나는 길에 몇 번 목적지까지 태워준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그 기억은 교수의 결백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급기야 버치 교수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이스가 사라진 날, 아빠가 여름캠프에 다녀온 자신들을 데리러 오기로 약속한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태는 점점 더 버치 교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처음에는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던 버치 교수의 아내 엘렌마저 흔들리기 시작한다. 교수는 이 모든 정황과 진술에 억울한 누명을 쓴 걸까,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이리저리 교묘한 설명으로 피해가는 지독히도 영리한 범죄자일까? 왜 버치 교수의 학생들은 그를 “로미오 교수님”이라는 별칭으로 부를까? 모든 진실이 마지막까지 드러나지 않아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고 결말이 드러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기막힌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지 하라(George Harrar)는 소설가 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소설 『First Tiger』 등을 발표했으며, 단편 소설 『The 5:22』는 「스토리 매거진(Story magazine)」이 수여하는 ‘카슨 맥쿨러 상(Carson McCullers Prize)’을 수상하고 1999년 ‘미국 최고의 단편소설’로 선정됐다.

NON-FICTION

제목 : EXPLORER'S SKETCHBOOKS
가제 : 탐험가의 스케치북
저자 : Huw Lewis-Jones, Kari Herbert
출판사: Thames and Hudson Ltd
발행일: 2016년 9월 2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예술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대에 70명의 탐험가들이 자연 속에 남긴 일기와 스케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산, 바다, 남극과 북극, 사막까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훌쩍 모험을 떠난다. 그 담대한 여행의 형태와 방법은 시간이 가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난 수 세기 동안 기술과 장비가 대폭 발전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탐험가들의 주머니 속에 반드시 들어 있는 필수품이 하나 있다. 바로 일기장이다. 미지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남긴 그림과 기록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탐험과 예술의 역사를 연구해온 역사가와 그의 아내이자 사진작가, 지리학 전문가인 두 저자는 70명의 탐험가들이 직접 남긴 기록과 스케치를 모아서 이 책을 완성했다. 얼어붙은 황무지, 고산지대, 황폐한 사막, 모든 것이 풍성한 열대 우림 지역에 들어선 탐험가들이 그 당시에 느낀 감정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귀중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다.

아마존의 강기슭,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 마야 유적지, 방대한 산악지대의 풍경부터 몽골의 평원, 북극에서도 최북단에서 목격한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송고한 풍경까지 자그마한 탐험가의 수첩과 일지, 천으로 동여맨 스케치북으로 옮겨졌다. 책에서 소개되는 70명의 탐험가들 중에는 영국 해군 출신으로 디스커버리 호에 올라 남극 탐험을 지휘한 캡틴 스콧이나 찰스 다윈,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한 노르웨이 탐험가 토르 헤위에르달처럼 익히 잘 알려진 인물들과 함께 마야 유적지를 기록하기 위해 멕시코 정글지대를 파고든 영국의 고고학자 아델라 브리톤이나 여성 최초로 사하라사막 횡단에 나선 알렉산드린 틴네처럼 비교적 덜 알려진 탐험가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탐험가마다 명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매우 다양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수집하고 이름을 짓는 것에 집착하다시피 몰두한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디든 서슴지 않고 발을 들여 놓은 대담한 탐험가들, 아마추어 탐험가와 프로 탐험가들이 결집되어 있다. 기록을 남긴 방식도 다양해서, 평생 동안 일기를 쓴 사람이나 탐험의 기록을 통

해 즐거움과 위안을 얻고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기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그저 매일 꼭 완료해야 하는 숙제로 여긴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탐험의 한 가운데에서 각자가 들인 노력과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사실만은 모두 동일하다.

두 저자는 지도를 만든 인물들과 식물학자, 예술가, 생태학자, 인류학자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부터 괴짜, 공상가 등 각양각색의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들이지만 때로는 무시당하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거나 오랜 세월 잊혀져서 방치되어 있던 것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세계 각국,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빈 종이에 남긴 탐험가들의 독백과 정성 들여 남긴 그림은 탐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목차>

서문

머리말: 거칠게 채워진 수첩들

스케치북

- 로알 아문센 등 10인

찬란한 숲

- 아델라 브리튼 등 22인

새로운 세상

- 메리웨더 루이스 등 11인

무한한 아름다움

- 에드워드 노튼 등 9인

하나뿐인 친구들

- 로버트 펠컨 스캇 등 10인

흔적을 남겨라

- 올리비아 톤지 등 7인

<저자 소개>

휴 루이스 존스(Huw Lewis-Jones)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탐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예술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영국 국립해양박물관과 스캇 폴라 리서치 연구소에서 큐레이터로 일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탐험과 시각예술에 관한 저술 활동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Arctic』, 『Ocean Portraits』, 『In Search of the South Pole』 등이 있다.

칼 허버트(Karl Herbert)는 유명한 북극 탐험가 윌리 허버트의 딸로, 그린란드 이누이트 사회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은 회고록 『The Explorer's Daughter』를 발표하여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 사진작가이자 강연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BLUEPRINT FOR A BATTLESTAR

가제 : 우주 전쟁의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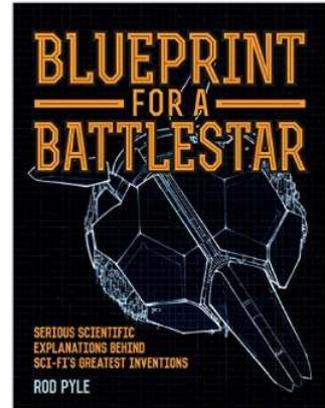
저자 : Rod Pyle

출판사: Aurum Press Ltd

발행일: 2016년 9월 1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과학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흥미로운 기술과 장치에 담긴 과학적 원리, 현실이 될 가능성

1989년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그린 미래의 모습과 장치 중에는 바퀴 없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 '호버보드'가 등장했다. 15년 정도가 지난해부터 진짜 호버보드가 거리에 등장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다. 아주 먼 미래에 등장하거나 그저 상상 속에만 존재할 줄 알았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룡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일은? 시간과 우주공간을 여행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궁금증도 영뚱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NASA 소속 연구소인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된 저자는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한 공상과학 영화에 적용된 과학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봉 예정인 영화들 중에서 현 시점에서 먼 미래를 그린 영화들에 담긴 신기한 미래사회의 모습도 함께 들여다본다.

총 4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 영화 <스타워즈>,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스타트렉>을 비롯해 <주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아이언맨>에는 개봉 당시 모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기술과 뇌리에 콕 박힌 장치들이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자는 그와 같은 기술이나 장치를 샅샅이 해부하여 그 속에 어떤 개념이 담겨 있는지 설명하고, 영화가 아닌 실제 세상에서 활용되는 과학기술 중에서 그와 비슷한 것, 혹은 그 바탕이 된 것을 설명한다. 총 75편의 인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기계의 구조나 작동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공간을 날아다닐 때 배낭처럼 매는 제트팩이나 또 하나의 골격처럼 몸 바깥에 입는 외골격,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데스스타와 같은 장치처럼 형태나 원리가 선명한 것도 있지만, 인체를 기계장치와 연결하는 포트로 활용하는 '바이오 포트'나 사람이나 우주선 전체 혹은 부분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명 장치'처럼 아직까지는 다소 모호한 아이디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기술은 저자가 인상 깊게 느낀 영화 장면이나 개인적인 경험, 영화나 소설, 게임에 등장하면서 발생시킨 파급 효과, 그 기술이나 장치를 현실화하는 일에 뛰어든 업체나 학계의 노력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소설가나 각본가, 영화감독이 왜 그와 같은 기술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역추적하면서 뿌리가 된 역사적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여 흥미로움을 더한다. 가령 제트팩의 경우 인간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매력적인 특징 때문에 1920년대부터 공상과학 분야에 등장했고,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 독일에서 제트팩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는 루머가 아직까지 전해진다. 컬러로 된 사진자료와 장치의 여러 측면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타낸 도면,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에 관한 설명은 기계나 전문적인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용설명서를 읽듯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상세하고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공상과학 영화 팬들은 물론, 아직 그러한 영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상상력의 힘과 미래의 과학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 제트팩
- 데스스타의 탄생
- 살인광선 만드는 법
- 봉쇄하라! - 방어용 에너지 장
- 여성 로봇(핼봇)
-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 광선 무기
- 나노기술
- 사이보그
- 공룡: 주라기 공원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로드 파일(Rod Pyle)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작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스타트렉: 딥 스페이스 나인>에서 시각 효과를 담당하고, 「Astronautics Notebook」, 「Foundation Journal」, 「Starlog」, 「DreamWatch」 등 과학과 공상과학 분야의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Destination Moon』 (Smithsonian Books), 『Innovation the NASA Way』 (McGraw-Hill), 『Missions to the Moon』 (Sterling) 등이 있다.

제목 : BUSINESS PLANS THAT GET INVESTMENT

가제 : 투자를 끌어 모으는 사업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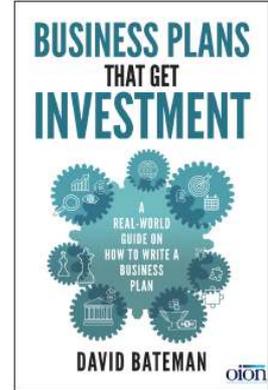
저자 : David Bateman

출판사: Legend Business

발행일: 2016년 8월 30일

분량 : 130 페이지

장르 : 경영



단 10분 안에 14페이지 안팎의 간결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서로 투자자의 마음을 얻는 요령

투자자의 관심을 얻고 원하는 투자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계획서를 받을까? 일주일에 수백 편이 기본이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사업계획을 추려내는 데 한 편당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사업의 내용을 빠르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분명하게 써야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바탕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직접 투자자가 되어 투자 요청을 수없이 받아본 저자는 이 책에서 짧지만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가 모두 담긴 알짜배기 사업계획서 쓰는 요령을 소개한다. 업무 경력이나 학력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10분 안에 자신의 사업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는 방법들이 제시된다.

사업계획서는 잘만 쓰면 두둑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살찌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잘못 쓰면 성공의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획서를 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지만, 잘 쓴 계획서가 줄줄이 가져올 성과를 생각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해야 한다.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잠재적인 투자자가 낯선 사업에 자신의 돈을 내놓았을 때, 몇 년 후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사업이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나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불러 놓을 것인지 설명하면 된다. 이처럼 간단한 모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결단을 내리는 첫 걸음으로 여기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소개하고 그것을 한정된 공간에 명확히 표현하고 제시하는 요령을 설명한다. 종이에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 앞에 몇 시간을 죽치고 있어봐야 아무 이득도 가져오지 못할 계획서만 나올 뿐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습득할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적합한 분량은 단 14페이지로, 한 페이지는 열 줄이 넘지 않아야 된다고 단언한다. 투자자는 기술자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상세한 기술적 원리나 이해할 수도 없는 수치와 수량까지 다 제시할 필요도 없다. 체계적인 구조를 먼저 세우고 제시할 정

보를 여러 차례 추리고 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이 공간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사업 분야와 업계에서의 경력, 회사 규모나 직원 수와 상관없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사업 소개의 전략을 소개한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서문

1부. 기초 쌓기

1장. 머리말

2장. 포맷

3장. 구성

2부. 사업계획 작성법

4장. 활용 분야

5장. 요약

6장. 기회

7장. 배경

8장. 이 사업의 차별성

9장. 진행 상황

10장. 시장

11장. 시장 접근 경로

12장. 경쟁업체

(이하 생략 - 총 2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데이비드 베이트먼(David Bateman)은 투자은행과 도이치 뱅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자산관리 업체에서 근무하며 5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은 경력이 있다. 엔젤 투자자 겸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옥스포드, 캠브리지, 하버드 등 대학 MBA에서 강의를 해 왔다.

제목: HERBARIUM

가제: 허브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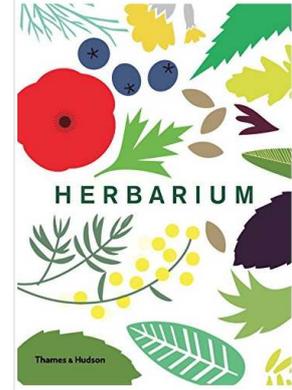
저자: Caz Hildebrand

출판사: Thames and Hudson Ltd

발행일: 2016년 8월 25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역사



향긋하고 독특한 풍미를 더하는 요리 재료,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 허브의 모든 것

음식에 맛이나 향을 더하고 약이나 향수 재료로도 널리 사용되는 허브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다. 먼 옛날에는 허브의 효능과 특징이 신비한 요소로 여겨져 병을 치료하고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그 힘을 빌리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현대에 들어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몹시 귀하게 여겨지던 허브를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면서 허브에 담긴 놀라운 특징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신비한 효과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찾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 디자이너이자 요리를 사랑하는 저자는 다양한 생김새만큼 효능도 각각각색인 허브 100종을 선별하여 이 책에서 각각의 허브에 담긴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 학명과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 원산지는 물론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과 역사적인 활용법, 허브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되거나 맛이 월등해지는 조합, 직접 재배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상세히 전한다. 허브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 대신 개성 있는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각 허브의 특징을 표현한 것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바질, 안젤리카, 판단(pandan)처럼 달콤한 향과 맛을 가진 허브도 있지만 수영(sorrel), 베르가못, 사사프라스처럼 특 쏘는 맛이 매력적인 허브나 민트 향이 나는 허브, 양파 냄새를 풍기는 허브, 씹싸래한 허브도 있다. 허브를 독립적인 개체로 보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할 100 종의 허브 하나하나를 흔들어보고, 느끼고, 향을 맡고 맛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시 없을 기쁨을 느꼈다고 전한다. 그리고 허브 중에는 키가 훌쩍 크지만 조용히 속삭이는 종류도 있고, 아주 작지만 우렁차게 고향을 지르는 종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허브가 지닌 다양한 특성 가운데 몇 가지만 단편적으로 안다면 그 허브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말로 '초본식물'로도 불리는 허브의 활용 방법과 특징, 모습, 역사를 총망라한 이 책은 뒷부분에 허브를 재배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요령과 각각의 허브와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 건강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한다. 15세기 말 무렵 유럽에 옮겨 심을 수 있는 허브가 유입된 이후 허브의 특징과 활용을 밝힌 중요한 역사

적인 자료를 골고루 참고하여 더욱 깊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징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생동감 넘치는 색깔로 페이지마다 가득 채운 일러스트레이션도 사진과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늘 인간의 삶과 함께 했던 허브를 좀 더 제대로 알고 더 적극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잉글리쉬 메이스

서양톱풀

투구꽃

아니스 히솅

레이디스 맨틀

마늘

골파

곰마늘

방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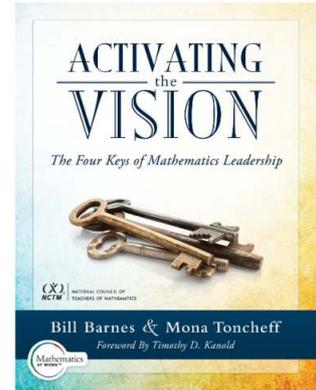
양아욱(마쉬멜로우)

(이하 생략 - 알파벳 순서로 총 100종)

<저자 소개>

카즈 힐드브란드(Caz Hildebrand)는 영국의 디자인 업체 ‘히어 디자인(Here Design)’에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이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여러 요리책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저서 『The Geometry of Pasta』를 발표했다.

제목 : ACTIVATING THE VISION
가제 : 수학교육의 비전과 현실화
저자 : Bill Barnes, Mona Toncheff
출판사: Solution Tree
발행일: 2016년 7월 15일
분량 : 248 페이지
장르 : 교육



전통적인 교수법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수학교육의 비전을 마련하여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강사들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부교수이자 미국의 전국 수학교육리더십위원회 동부 지역 대표인 저자와 해당 위원회의 전체 부위원장인 저자는 누구보다 그 변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수학이라는 학과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학 교육자들이 협력하여 교수법과 학습법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두 저자는 '수학 리더십의 네 가지 핵심'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에서, 점점 발전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교·강사의 지도 방식, 평가 방식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할 과거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수학 교육자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다.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실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협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점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저자의 의견이다. 학생과 그 가족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학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를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지역별, 팀 별, 교육기관의 유형별로 제시한다.

책은 수학교육 리더십의 네 가지 핵심이라는 부제에 맞게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수학 교육자인 독자가 현재 자신이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교육과 학습에 관한 공통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현재 자신이 속한 학구의 장점과 단점, 남다른 기회를 평가하고 작은 실용적인 정보는 물론, 수학 교육자들이 서로의 작은 성공도 함께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교사 집단의 리더가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갖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시한다. 원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그 교사들을 이끄는 리더가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교육 기회는 소속 학교의 대표나 학구의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3부에서는 수학교육과 학습의 비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와 학구에 마련되어야 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공적인 팀을 구성하는 방법,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 도구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방법, 교사와 학생의 기대치를 학습 현장에서 명확하게 총

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소개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수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더욱 지지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자가 먼저 나서서 그 길을 열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설명한다. 학교와 학구에서 운영하는 수학교육 프로그램이 지지를 받고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수학 교육자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네 가지 핵심 요소와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교육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목차>

1부. 수학 교육과 학습에 관한 명확한 비전 확립

- 1장. 현재 프로그램은 얼마나 탄탄한가?
- 2장. 본보기가 될 만한 수학 프로그램,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
- 3장. 성공을 평가하는 방법

2부. 교사와 교사의 리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기회

- 4장. 교사에게 필요한 양질의 세분화된 전문 학습 기회
- 5장. 기술과 효율성이 모두 우수한 수학교육 리더의 개발
- 6장. 지역별 교육행정가와 학구 대표의 역량 강화

3부.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7장. 서로 돕는 팀의 활동 강화
- 8장.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평가방법 개발, 실행

(이하 생략 - 총 12장, 부록 A, B, C로 구성)

<저자 소개>

빌 반스(Bill Barnes)는 메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의 초·중등 교육과정 책임자이자 '전국 수학교육관리자위원회' 동부지역2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 메릴랜드-볼티모어 카운티 대학교, 토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3년 메릴랜드 주의 '수학 과학 교육자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메릴랜드 수학교육사위원회에서 '뛰어난 중등 수학교사'로도 선정됐다.

모나 톤체프(Mona Toncheff)는 애리조나 수학 파트너십의 프로젝트 관리자이자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미국 전역을 돌면서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과 상담, 교육을 실시해 왔다. '전국 수학교육관리자 위원회'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애리조나 수학교육사협회로부터 수학 교육의 리더십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코퍼 애플 상(Copper Apple Award)'을 받았다.

제목 : THE NEW ART AND SCIENCE OF TEACHING

가제 : 교육의 새로운 기술과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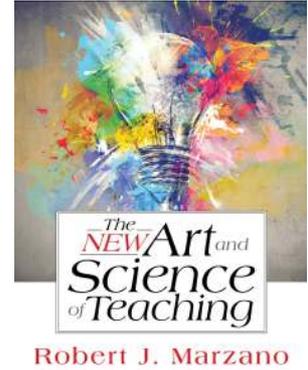
저자 : Robert J Marzano

출판사: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발행일: - (개정판)

분량 : -

장르 : 교육



학생들의 심리적, 학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교육 방법과 전략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과 전략은 탄탄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철저히 검증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한들,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일은 일종의 '기술'에 가깝다. 2007년에 바로 이 기술을 설명한 저서를 발표했던 저자는 지난 10년 간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마련했다. 기존의 책이 교사가 이루어야 할 성과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생들에게 고집어내야 할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가 50여 년 간 이어온 교육에 관한 연구와 밀도 높은 관찰을 바탕으로, 50가지 새로운 교육 전략을 소개하고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정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마련해주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학생이 제시한 과제나 의견에 대한 피드백, 충분히 의미가 있는 주제와 내용에 관한 수업, 그리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다. 이와 같은 핵심 원칙을 토대로 기존 버전을 크게 확장시킨 개정판에서는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최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의 정신적인 상태와 사고 과정에 맞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기존 버전과 개정판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3장은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4장부터 7장은 가르치는 내용, 즉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학생들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이 지도 과정에 담긴 기술적인 요소를 설명한다. 더불어 직접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과 심화 학습, 배운 것을 활용하는 응용 학습 등 세 가지 수업 유형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별적으로 제시한다. 이어 8장부터 11장까지는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8장에서는 학습에 참여하는 태도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9장에서는 학급 규칙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교실의 다양한 절차가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10장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관계의 형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급에서 자신이 환영 받고 존중 받는 존재임을 느

끼게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11장에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사가 실제보다 높은 기준치를 제시하고 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마지막 12장에서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뛰어 넘어야 할 교육체계 상의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저자가 마련한 ‘교육의 새로운 기술과 과학 모델’과 이 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 방식에서 바뀌어야 할 점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모델 안에서 찾아본다.

<목차>

- 총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버트 J. 마르차노(Robert J. Marzano)는 뉴욕 아이오나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시애틀 대학에서 석사를,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마르차노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로, 교육연구에 힘써 왔다. 교수법, 평가법, 글쓰기, 효과적인 리더십, 학교의 중재 전략 등에 관한 주제로 150편의 기고문과 30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다.